

자연의 통역사, 자연환경해설사¹⁾

정은숙²⁾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개 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21세기 디지털의 시대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산과 바다, 숲 그리고 계곡을 찾아 자연환경에서 힐링(healing)하는 것이다. 인간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모든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 즉, 자연환경은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공익에 적합하게 자연을 보전하고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은 생태체험의 여가활동에서 생태탐방프로그램의 교육활동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고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이기에 생태탐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식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적수준에 따른 탐방객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어 많은 이들이 자연환경해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 내 손안에 지식백과사전이 있어 누구나 쉽게 정보를 갖고 제각각의 목적으로 생태탐방을 찾는 탐방객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소리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하여 지금의 자연환경을 직접 느끼고자 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해설이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다. 레시피대로 정확한 재료와 양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요리를 완성해도 그 맛은 누가 하냐에 따라 또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이 그러하다. 주제별, 계절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다양한 시각에서 쉽고 재밌게 해설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상호관련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위한 전문적인 자연환경해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그 지역의 자연보전과 나아가 지역사회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Professional Interpreter of Nature Environment

2)JUNG, Eun-Sook, Gyeongju National Park Service, E-mail: jes3838@hanmail.net

자연환경해설사의 역할

자연환경해설사의 정의, 직무 및 역할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 보전의 인식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 홍보, 교육, 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셋째,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전의 국립공원이거나 생태관광지역에서의 역할은 단순한 휴양서비스 및 안내 역할 정도였으나 지금의 자연환경해설사의 주된 활동은 해설서비스를 통한 교육적인 역할이다. 체험학습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환경교육,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 건강한 심신 치유 등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느끼는 오감을 자극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 환경교육과 환경해설의 차이점

구 분	환경교육	환경해설
전달목표	· 환경에 대한 관심, 태도 고취 · 환경 문제의 해결 기술 제공 · 환경에 대한 직접적 참여 유도	· 대상자의 적절한 이용 도모 · 관리주체의 이해 증진 · 참여자의 경험 만족 제공
정보전달체계	· 공식적 학습과정 · 정형화된 교과과정 기초 · 일정 대상자 연속과정 가능 · 지식 전달 강조	· 비공식적 학습과정 · 정형화된 교과과정 없음 · 대상자에 대한 1회성 전달 · 자극, 메시지 전달 강조
흥미와 즐거움	· 학습효과의 수단 요소	·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요소
대 상 자	· 일정 의무적 참여자	· 자율적 참여자
참여자과 강사관계	· 수직관계	· 수평관계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과정

2004년 환경부에서 시행하였던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적인 환경해설과 환경교육을 위해 2012년 자연환경해설 양성과정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다시 세부적으로 자연환경의 폭넓은 교육 분야를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지정한 북한산생태탐방연수원 외 10 곳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각각의 양성과

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 가.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표 2.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교육분야	기본양성 과정 (80시간)	간이양성 과정 (35시간)	전문 과정 (100시간)
해설안내	28	9	49
자연환경의 이해	31	15	21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	7	19
커뮤니케이션	10	4	11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의 개선방안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해설사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이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교육내용이 필요해 보인다. 수박 겉핥기식의 인문 사회환경, 자연환경 교육과정에서 전문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위해 시행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은 체계적인 노력에 비해 다른 분야의 해설사 수료증처럼 크게 영향력이 없다. 또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마다 이수자는 배출되고 있는 반면에 지속적인 교육이나 희망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따라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1) 국내 환경해설 및 교육내용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기관별 협의하에 이수과목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 대학의 관련학과에 대한 교과과정 참여 등 폭넓은 연령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 3) 자연환경해설사 자격취득 후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4) 각 지역특성에 맞는 생태탐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상품화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탐방프로그램

현재 필자가 활동중인 경주국립공원에서는 탐방해설업무를 주로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탐방객에 따라 생태놀이, 체험활동, 자연보전활동을 병행하며 진행하고 있다.

표 3. 경주국립공원의 생태해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및 내용
<p>[생태나누리캠프(단체예약)]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 역사문화체험과 함께 자연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고 자연해설을 통한 나눔과 배려를 이해하는 프로그램</p>
<p>[건강나누리캠프(환경성질환의 가족)] 숲 속에서 삼림욕과 기체조, 자연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치유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그램</p>
<p>[세계 속의 경주(외국인 및 교환학생)] 세계 유산을 찾아다니며 한국적인 자연환경과 이색적인 전통문화체험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교류, 이해관계를 넓히는 프로그램</p>
<p>[일방탐방해설 프로그램 (환경교육 프로그램인중)] 자연경관 중심의 자연해설과는 달리 천년고도 경주의 특색을 살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하나 되어 지혜로운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주국립공원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는 ‘신라왕정을 찾아서’, 신라인의 불교성지 경주 남산을 오르며 ‘이야기가 있는 남산트레킹’ 그리고 토함산자락에 있는 세계 유산 ‘배우는 불국사! 느끼는 자연!’이 있다.</p>
<p>[미래세대 프로그램] 국립공원에서 자연과 함께 꿈을 키우고 자기주도형으로 적성을 찾아서 마음껏 기질을 발휘할 수 있으며 미래 세대들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년의 숲학교(취학전 어린이대상) * 천년의 자락에서 미래를 꿈꾸다(자유학기제-중·고등학생단체) * 경주국립공원 주니어레인저(중·고등학생 8주차교육)

나! 그리고 전문 해설사

전문 해설사란 특별히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순간이 가장 행복할 때 바로 그때의 내 모습이 전문 해설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향후 자연환경해설사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동안 필자가 항상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나의 해설 수칙을 정리한다.

하나, 기본에 충실하자.
둘, 해설은 쉽고 재밌어야 한다.
셋, 탐방객의 연령, 직업, 취미, 지적수준 등을 고려한다.
넷,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내어 흥미유발을 한다.
다섯, 한가지 주제를 정해서 해설한다.
여섯, 혼자가 아닌 함께 대화하듯 해설한다.
일곱,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여덟, 정확한 출처가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아홉, 탐방객 눈높이에 맞게 해설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한다.
열, 다양한 시각에서 탐방객 참여를 유도한다.
열하나, 자연환경에 대해 알고 환경보전을 이해한다.
열둘, 한 장소에서 해설시간 10분을 넘기지 마라

참고자료

진현경, 2013.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참가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통한 자연환경해설사제도. 고려대
최동원, 2015.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과정 개선 방안. 단국대
경주국립공원사무소, 2016. 탐방프로그램 안내해설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2016.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기본과정). 환경부